1.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총여학생회 :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

(1)

이 부분에서 보일 것은 총여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논쟁하고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학내의 자치적인 활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2) 2000년 연대 총여학생회는 어떤 자치성·민주성을 확보할 것인가?

■ 예산자치제

총여에 집중된 예산의 공유.
예산자치제는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치단체'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도 열어둔다.
1년에 2~3회. 한 학기에 한번이상 이루어지도록.

■ 예산지원

예산자치제가 시행되지 않는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행사에 대한 지원
지원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 공간위원회

공간 이용에 있어서.
자치단체나 조모임, 여성학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총여의 넓은 공간이나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자치제와 비슷한 형식의 공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 자치단체와의 회의 테이블

■ 여성주제 조모임에 대한 지원

겹치는 면이 있지만(예산자치제, 공간위원회, '예산지원' 등)
여성 관련 조모임들(여성학 수업이나 다른 수업)

■ 논쟁을 논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총여

■ 총여 사업에 대한 평가의 자리를 만든다

■ 총여 in 사이버스페이스

살아있는 총여학생회
부담되지 않는 소통의 공간.
자유롭게 애길 할 수 있도록
단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연세여성'을 만들기 보다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전환도 필요할 듯

2. 다양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총여

(1)

▶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개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일상적인 공간으로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총여
▶공간 별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공간의 정치화'를 바란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다양성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연세의 각 공간을 자세히 뒤집어 보면서 총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에 따라 정말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가지 이다. 첫째, 학교 당국에 요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 둘째, 여학우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간의 불합리한 점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총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는 구분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듯)
▶이는 복지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고 복지와 정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말하자면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복지를 말하는 것은 일상성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공간별로 정확하고 자세한 실사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유의할 점과 세부내용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구분선에 따라 다양성을 사고하는 것은 자칫 진부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구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된 각 공간의 실태와 그 공간에 속해 있는 여학우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막글로 넣을 수 있다.
-가시화되어 있는 여성은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
-각 공간의 '여성주의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예를 들면 단대별 교수비율)을 분석한다.
-각 공간의 여성들에 대해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예를들면 공대 여성과 생과대 여성의 이미지)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2)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의 예와 우리가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

· 여성이 많은 공간의 여성과 여성이 적은 공간의 여성
· 중도에서 기거하는 여성
· 기숙사에 사는 여성: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야 하는 여성
·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여성
· 고시생: 고시동 기숙사
· 대강당을 지나 다니는 여성: 학내에 학생들의 공간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 그러나 그러한 없는 공간조차 성별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에 따라 권력 불평등이 나타남을 이야기할 수 있다. 덧붙여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등을 말할 수 있다.
· 하숙집, 자취집에서 생활하는 여성: 여학생들이 살기 편한 하숙집 정보

3. 여성주의 정치성이 확장되는 핵심적 지지자, 행위자로서의 총여학생회

(여성개인에게 말하고 이것을 집단으로 끌어내어 흐름을 만들어 낸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행하라! 말하라! 성찰하라! 라고 하지 않는다.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흐름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

· 여성학 수업

· 여성학 수업 · 세미나, 조모임에 대한 지원
자치단체나 조모임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나 세미나 커리에 대한 조언
여성학 모니터링 팀을 만들자.
강사 선정 과정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참여.
여성학 수업의 정체성을 찾도록. 강사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수업별 차별화
여성학 수업 강사와 학생 소통의 장을 마련
여성학 수업이 레벨별로 개설되도록

· 여성학 리포트 콘테스트와 리포트 모음집 발행
여성학 관련 수업에서 제출되는 리포트들이 단지 하나의 수업에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단지 리포트들을 모은 것이 아닌 여성학 주제에 대한 내용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여성학 수업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의 도움을 받는다. 생활도서관과 연계 가능)

·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여성 지원
여성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여학우들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 - 인터넷, 통신, 홈페이지 제작 관련
사이버 공간에의 참여를 돕는다
학기초에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좌를 개설한다.

· 10만원 여성 영화제
작품 영화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상영하고 시상하는 영화제 개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지원해준다.
여성 관련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 영화 혹은 다큐물
영상물로 조발표를 하는 수업이나 영화 동아리 혹은 관심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 학내 여성 언론에 대한 지원 · 후원사업
게릴라 언론 - 비정규적. 내용이나 형식에의 자유로움 - 을 만들자.
게릴라 언론? 여성학 수업을 굳이 조발표의 형식으로만 해야하는가?
이를테면 수업 시간에 신문을 만들어보라는 식도 가능할텐데..

· 여성들의 놀이 공간 창출
힙합 댄스, 풍물패 강좌.
문화적 인적 자원 창출

· 제3세계 여성의 인권.

4. 여성의 눈으로 보고 여성의 입장에서 대표하는 총여학생회

(0)

· 11대 총여학생회는 여성의 입장이었는가?
-이제는 남성해방이다?
총여의 본래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11대
-총학생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 여성행동 선본의 총여학생회론에 대한 비판점
-5000 여학우의 허구적인 대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너의 일은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개인주의적인 이야기로만 소급되었다.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1) '학생회로서의 총여학생회의 역할'은 수행되어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모든 여성들, 즉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가부장제, 남성중심적인 제도, 성차별 문화 등 으로부터 여서의 권리를 되찾아오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있어 강력한 행위자여야 한다. 이것이 '학생회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모든 여성','6000여학우'라는 허구적인 선언은 하지 않겠다. 다른 조건에 존재하는 여성들에 주목할 것이고, 다른 조건에서 구성되는 여성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화할 것이다.

(2) 총여학생회는 '집단 여성'의 입장에서 서야 한다.

(3) 2000년 연세 총여학생회는 여성의 입장에서 어떠한 발언을 해야 하는가?

■ 성폭력
· 성폭력 상담소의 '제대로'된 운영.
-현재 성폭력 상담소 현황
성폭력 상담소 간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실사판단/// 월요일/e-mail 상담
-상담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성교육, 상담자의 자질,
· 학교측의 성폭력 정책에 대응
[참고자료] 성폭력 공청회
· 성폭력 학칙제정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3번 기조에 맞추어 진행함)
학칙 제정과정에 개입한다.
여학생처의 자의적인 학칙 제정에 대한 반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성교육
신입생 새터 때 총여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자치단체가 있는 곳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없는 곳은 총여가 어느 정도 위치를 담당한다.
· 성폭력의 일반화 학교를 벗어난 성폭력 : 기지촌 여성문제(이정숙씨)

■ 예산자치제
총여에 집중된 예산의 공유.
예산자치제는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치단체~~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도 열어둔다.
1년에 2회. 한 학기에 한번 이루어지도록(20%)
예산자치제가 시행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행사에도
- 예산이 지원되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 여성주제 조모임에 대한 예산, 공간 지원. 대상은 확실히 > - 예산자치제, 공간
여성 관련 조모임들(여성학 수업이나 다른 수업)

■ 총여 공간 이용
공간 이용에 있어서.
자치단체나 조모임, 여성학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총여 공간과 세미나실.
총여의 넓은 공간이나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총여 사업에 대한 평가의 자리를 만든다. 이름: ?
예산 사용 내역 공개 / 평가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총여 예산 사용 내역 공개와 사업 평가자리를 갖는다.

■ 총여 in 사이버스페이스 - 홈페이지
살아있는 총여학생회
부담되지 않는 소통의 공간.
자유롭게 애길 할 수 있도록
단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 총여 알림지.

■ 총여의 고정적인 알림공간(게시판) 마련

5. 공약은 아니다.

■ 성폭력의 일반화 학교를 벗어난 성폭력 : 기지촌 여성문제(이정숙씨 사건)
진단글. 우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비대위와의 인터뷰

■ 2000년 세계여성행진 (평가)
여성운동의 확장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풀어낸다.
광고나 제안글 형식으로

■ 2000년 학생법정 (평가)
정신대 할머니 문제를 가지고 준비 학생 워크샵
광고 형식으로.

◈제 1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박정은·이명수 선거운동본부

<으뜸 구호>

빛을 발하라, 여명(女名)

<정책 및 공약>

◎총여학생회 정체성

●여성운동기구로서의 역할

○학내여성운동

학내에서 여학우와 남학우들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세워짐을 위하여

남·여학우 함께 참여하는 여성학 FORUM개최

여성자치단체들과의

언론 공유

- 연세 여성를 통한 자치단체 알림 작업

공동 세미나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여성자치단체 지원

○사회여성운동

연합을 통한 여성운동의 사회적 확산

타대학 총여학생회와의 연합을 통한 대학여성운동 규모의 확대

총여자동창회의 여성 운동과의 연계

고등학생들을 초청- 성에 대한 강연회 및 의식 편지 발송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단 모집·지원

- 여성의 참여를 통한 사회 역할 배분

실직 가장 여성 돕기 캠페인의 지속적 지원

●행정기구로서의 역할

○복지 및 취업

여학우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연세

생협 잉여금 중 정당한 여학우 몫 확보

-생협이사회학부 대표 3인중 1인의 여학우 좌석 확보및 생협 대의원 활동 확대

총여자동창회 및 여학생처와의 교류를 통한 실질적 취업간담회 및 취업 세미나 개최

○여학우 대의기구

여학우 개인의 이름이 불리우고 그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연세

총여학생회 전용 홈페이지 개설

여학생 공간에 의견함 비치 및 실행여부 알림 작업

설문조사

제1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오혜신,정지원 운동본부

◈으뜸구호:남성 여성의 규제된 시선을 넘어 새로운 인간화의 담론으로

자주의 새 세기를 열어가는 너와 나의 공명(空鳴)

◆공명 하나

인간, 이 절반을 위한 단어에 여성의 의미를 담겠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들 속에서 유린당하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성폭력학칙재정운동

--여성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와의 공동투쟁 및 여성취업 백서 발간

--여성학 강좌의 필수화 추진

◆공명 둘

손길이 닿는 곳에 여학생회가 있겠습니다.

여성운동이 여학우들의 삶과 떨어져 관념적인 논쟁으로 되는 것은 "해방"에 대한 당위는 있지만, 5000여학우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기본은 운동을 통하여 해방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운동의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여성의 운동 공간의 확충-여성들의 체력육성실(학내 및 기숙사) 및 재즈 댄스 강좌

--여성휴식공간 정비(난방 문제 해결, 매점 운영)

--여성용품 자판기 관리 및 총여학생회의 직접 판매

--여성자치 소모임들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예산자치제

◆공명 셋

여성의 손으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된 문화 영역에 여성들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인 절차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연세총여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스폰서는 여학우들의 문예 실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쓸 것입니다.

--여성신문의 내용을 풍부하게

--틀과 폭이 확대된 여성문화제

--정기 여성 영화 상영회

--여성문예지 발간

--여학우들이 직접 만든 단편 영화제(영화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여성학 도서관

--여성학 강연

◆공명 넷

억압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종류가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 근원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억압들은 서로 비슷한 연결고리들을 가지며 하나의 해방은 다른 억압의 해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성해방을 위해 다른 해방의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기지촌 활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농민활동, 빈민 활동의 여성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활동들을 벌여 낼 것입니다.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함께 합니다.

--학원자주화 투쟁에 함께 합니다.

--조국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들과 공동 혹은 연대 투쟁을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